

Beautiful Day

SNS 매거진
No. 21
2017. Augu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함께 행복입니다



Beautiful@day AUG. 2017 CONTENTS

- 03 Hot Issue
아름다운 선거 사진
- 04 카드뉴스
화합의 선거
- 06 영화 속 선거⑩
<공동경비구역 JSA>
먼저 총을 꺼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 08 특집기사
미니멀라이프, 너무나 매력적인 것
- 10 웹툰
보담
- 12 특별기고
협치(協治)에 대한 소고(小考)
- 14 선택의 중요성
햄릿증후군과 선거
- 16 여름철 여행
여름휴가 “꼭 찍어, 여기 어때?”
- 18 타협의 중요성
미국 프로야구의 타협과 절충, 상생



- 20 A-WEB⑩
민주주의 교류의 장,
A-WEB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 22 오늘의 선거역사⑩
아르헨티나 민주 정치의 상징, ‘라울 알폰신’
- 24 정치도 연애처럼
우리 얘기 좀 해요
- 26 한국선거방송 소개
- 27 독자마당
댓글을 만나다



김진영



노은선



강돈영



윤영기



서다운



장석천

Hot Issue

아름다운 선거 사진

아름다운 선거,
유권자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움과
선거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다!

SNS MAGAZINE
No.21 2017 08



발행일 | 2017. 08. 01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기획 | 미디어과
구독문의 | 02-507-4351
ahj0824@korea.kr

Beautiful@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day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볼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화합의 선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자
**힐러리
로덤 클린턴**

“오바마 의원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출처: 2015.01.21 [오바마 대통령에 투표하길] - wikipedia

패배 인정 후 오바마 지지

CNN에서 생중계한 힐러리의 연설은 정치가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부하면서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바마를 칭찬했다.

그는 단순히 오바마를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수의 연속 속에서 진행된 힐러리의 패배 인정 연설은
승리의 연설처럼 힘있고 당당했다.



패배 인정 후 마크리 지지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집권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PV)의 다니엘 시올리 후보가 보수야당인
공화주의 제안당(PRO)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에
대한 패배를 인정했다.

시올리 후보는 공식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되기도
전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 했고 “대중의 의지에 따라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12년 만에 ‘페론주의’ 진영의 패배를 시인했다.



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다니엘 시올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자로서 대안을 선택한
대중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
에마뉼 마크롱

“그들은 오늘 분노와 실망, 그리고 믿는 바를 드러냈다.
나는 그들을 존중한다.
앞으로 5년(임기)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극단주의에 투표할 이유가 없어지도록 하겠다.
오늘 밤에는 단 하나의 재통합된 프랑스만 있을 뿐.”

승리를 축하한 르펜을 포용

선거에 패한 르펜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는 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다. 마크롱 당선을 축하한다.
그가 잘 해내기를 바란다”며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마크롱은 대선 승리 연설을 하던 중 경쟁 후보였던
국민전선(FN) 마린 르펜을 언급할 때 청중이 야유하자
손으로 이를 제지하며 “극단주의를 위해
다시 투표할 이유가 없도록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오바마 ‘중산층 살리기’ 발언 지지

힐러리 로덤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오바마가 올린 글에 “오바마 대통령이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셈이다.



승패에 관계 없이 서로를 포용하는

화합의 선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공동경비구역 JSA> 먼저 총을 꺼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와 이병헌, 이영애가 주연을 맡았던 <공동경비구역 JSA>는 바로 이 팽팽한 긴장의 상태가 초래한 비극에 관한 영화다. 이 영화는 지난 2000년에 개봉했고, 케이블 TV에서도 수차례 방영된 덕분에 반복 관람한 사람이 많은 작품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비극적인 기운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남과 북의 병사들이 나누는 우정의 미담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영화가 처음 관객과 만났던 그때는 남과 북의 미담이 신선하고 강렬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시절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가 그에게 총을 쏜 것인가

<공동경비구역 JSA>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 병사와 장교의 사망사건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당시 남한 병사와 북한 병사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 교전을 벌였던 양쪽 병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남한 병사들은 북한 병사들이 자신들을 납치했었다고 진술한다. 북한 병사들은 갑자기 남한 병사들이 초소로 침입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진실은 사실 이들이 꽤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교분을 쌓아왔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김광석의 노래들을 들었다. 함께 닭싸움을 했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서로의 가족과 연인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불렀다. 영화에서 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면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하며 아름답다. 그런데 왜 그들 사이에서 사람이 죽는 것인가? 누가 그에게 총을 쏜 것인가. 왜 그는 총을 쏘았을까.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극은 일종의 해프닝과 같다. 하지만 이 비극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이수혁 병장(남한, 이병헌)과 남성



식 일병(남한, 김태우)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중필 중사(북한, 송강호)와 정우진 전사(북한, 신하균)를 찾아간다. 4명의 남자들은 또 함께 술을 마시고,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담배를 나눠피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아쉬움을 달랜다. 축 처진 분위기를 정우진이 바꿔보겠다고 방귀로 장난을 친다. 냄새를 빼려고 남성이 북한 초소의 문을 연 순간, 모두가 얼어버린다. 그곳에는 북한군 장교가 있었다. 이들의 교류가 발각된 것이다. 장교는 바로 총을 빼내 남한 병사들을 겨누고, 이수혁 역시 그를 총으로 겨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이 다시 깨진다. 장교의 명령에 겁을 먹은 정우진 마저 남한 병사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다. 숨막히는 대치상황을 중재하려는 건 오중필 중사다. “수혁아, 총 내려놔라. 이제 어쩔 수 없지 않겠어? 내가 잘 말해줄테니까, 자진 월북한 걸로 하고 우리 공화국에서 살자우.” 이수혁은 거부한다. “저 새끼 말 못 믿는 거 형이 더 잘 알잖아! 형도 그랬잖아. 공 세우려고 혈안이 된 새끼라고. 우리 둘 다 죽여놓고, 잠입한 놈들 사살했다고 구라칠 게 뻔해.” 그제야 이수혁은 현실을 깨닫는다. “형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하지만 오중필은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본다. “야 이수혁이 이딴 식으로 나가다가는 전부 다 죽는 기야.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우. 동시에 내리는 기야요.” 그렇게 오중필이 양쪽의 총을 잡고 동시에 내린다.

먼저 총을 꺼내지 않을 용기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양쪽 모두 총을 겨두었다면, 이수혁과 남성이 다시 남한 초소로 돌아갔다면... 북한 병사들은 장교에게 문책을 당했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수혁과 남성이 북한 병사들과의 우정은 평생의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의 통합과 협치에 필요한 건, 작은 소리에도 먼저 총을 꺼내지 않을 용기다. 이 용기는 정치인 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초소 안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울리던 카세트 테이프가 ‘찰칵’ 소리를 낸다. 이 작은 소리 하나에 팽팽한 긴장이 다시 당겨진 것이다. 북한군 장교는 다시 총을 빼려고, 그것을 본 남성이도 총을 빼서 그를 쏜다. 그걸 본 정우진이 총을 쏘자, 남성이는 그에게도 총을 쏜다. 그는 총질을 제어하지 못한다. 동생처럼 아꼈던 정우진은 그가 난사하는 총을 계속 맞는다. 하지만 이건 이수혁의 거짓말이었다. 사실 정우진에게 총을 쏜 건 이수혁 자신이였다. 죄책감을 느끼던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만다. 조금 전 이수혁의 대사가 다시 생각나는 상황이다. “형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이들의 비극을 초래한 건 서로에게 갖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다.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괴물이 되어 나타나는 공포다.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당 당사를 찾아갔고, 이후에는 곧바로 각당의 원내대표를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다. 또 대통령의 여러 행보에 대부분의 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우정의 시기에도 그들이 서로에게 가진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오중필 중사의 말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양쪽 모두 총을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단지 정치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각 당당의 지지자들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통합과 협치는 정치인들만의 화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내가 두려워하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한다면, 나는 그를 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지지자들을 다 함께 품고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결국 정치의 통합과 협치에 필요한 건, 작은 소리에도 먼저 총을 꺼내지 않을 용기일 것이다. 그리고 이 용기는 정치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서 한 표를 던졌고, 그 결과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했던 유권자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㉞

글 :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하평턴포스트코리아> 뉴스에디터

미니멀라이프, 너무나 매력적인 것



최소한의 물품만 갖고 생활하는 삶

요즘 생활 속 미니멀라이프 실천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니멀라이프가 대체 무엇인가에 이렇게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고 블로그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까요? 미니멀라이프란, 단어에서 보여지는 뜻 그대로 Minimal한 life. 즉, 최소한만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미니멀리스트라고 지칭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물품만 갖고 생활하는 것이 미니멀라이프라면 참 단순해 보이는데, 왜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미니멀라이프가 단순한 자원절약 또는 알뜰함을 넘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목적, '비움을 통해 느끼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풍족한 생활 = 많은 물건'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건이 늘어날수록 그 물건을 수납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공간, 더 큰 집, 점점 필요해지는 것이 늘어만 갑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물건이 많을수록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미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중복하여 구매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만 품목별로 최소한만 구비하는 소비습관을 갖는다면 더 효율적인 소비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깔끔한 공간과 정리정돈 덕에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건을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면 되겠다고요? NO. NO. NO!

이제부터 미니멀라이프의 꽃인 '버리기'를 이야기해 볼까요. 진정한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버리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 베품시장 판매, 자선단체에 기증하는 것 모두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물건을 버려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보자답게 소위 '미니멀게임'이라고 하는 '1일 1버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미니멀라이프 일기를 함께 보실까요?

1일차 시작은 힘들다. 방안을 둘러보았으나 버릴 것 없이 다 소중한 보임. 나중에 꼭 쓸일이 생길 것만 같아! 아무것도 못 버리겠어.

1주일차 옷 버리기 돌입. 2년간 각 계절을 2번이나 거치고도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옷들이니 과감히 버리기. 약 40벌을 자선단체에 기증하였다. 나에겐 쓸모없던 옷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쁜 옷으로 활용된다니 기쁘다.(더불어 연말정산때 혜택받을 수 있는 기부영수증까지 발급받음) 옷을 버리려 정리를 하다보니 내 소비습관을 반성하게 된다. 비슷한 디자인의 비슷한 색상, 좋아하는 패턴의 옷만 반복적으로 여러 벌 중복되어 사는 게 보인다. 또한 옷을 버리고 나니 보이지 않았던 예쁜 옷들이 눈에 띄인다. 매년 옷을 사면서도 매년 중요한 날에 입고 나갈만한 옷이 없었던 여자라면 공감하는 미스터리의 정답은 바로 '옷이 너무 많아 정작 필요한 옷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 단계 나아가 옷 1벌을 사면 꼭 한 옷 1벌을 버리는 법칙을 지키기로 결심! One in One out!



“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과감히
버리는 것,
선거와 정치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난무하는 공약 속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작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은 허투루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2주일차 화장품 버리기 돌입. 찾아보니 2+1이라고 사고 1+1이라고 사두고는 너무 많은 물건 속에 싸여 사용하지 못해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게 되는 것이 많아 너무 아깝다. 주위에 나누어주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은 따로 모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집중적으로 사용해 소비한다.

아이췌도우와 립스틱은 비슷한 색상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있음을 알았다. 립스틱은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구매할 필요조차 없겠다. 앞으로 2년간 열심히 써도 못할 만큼의 립스틱을 갖고 있었다. 불필요한 샘플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과감히 버리고 나니 좋아하는 제품들만 남는다.

3주일차 집안 곳곳에 잡동사니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방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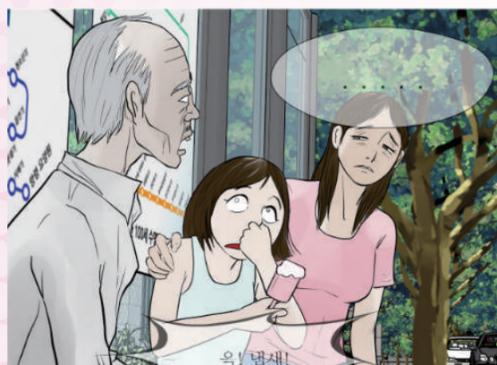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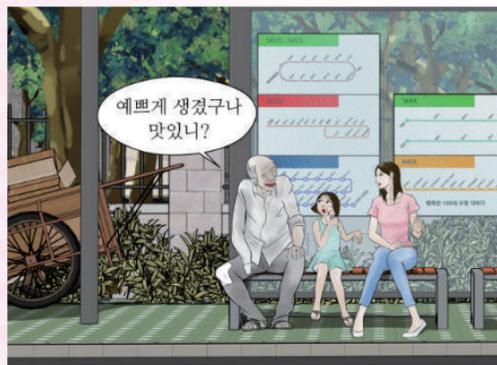
5주일차 퇴근길에도 주말에도 오늘은 뭘 버릴까라는 생각에 기쁘다. 불필요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불필요한 충동구매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쓸데없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 즐겁다. 충동구매가 줄다보니 물건을 사기위한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 이상하다. 물건은 줄어가는데 항상 마음에는 여유가 있다.

선거와 정치에도 미니멀라이프

어떠신가요? 처음엔 옷 한 벌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손이 떨려 버리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오늘은 무엇을 버릴까 설레고 있습니다. 잡동사니는 줄어들고 정신적인 여유가 늘어났습니다. 집은 깔끔해지고 휴식이 늘어났습니다. 정해진 금액에서 사고 싶은 건 많아 고민했던 나날들이 가고, 무엇을 버릴지를 생각하느라 행복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운 미니멀라이프는 물건에만 적용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미니멀라이프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인간관계의 미니멀라이프(휴대전화에 오래된 연락처 삭제로부터 시작) 감정의 미니멀라이프(불필요한 감정 버리기, 화나는 감정, 외로움의 감정 버리기)까지! 미니멀라이프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과감히 버리는 것, 선거와 정치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난무하는 수많은 후보자들의 공약.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쓰고 공약이라 읽는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는데, 난무하는 공약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작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을 허투루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공약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과장된 공약들과 해당 후보자를 찾아 '버리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니멀라이프를 처음 시작하여 한 개를 버릴 때에도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고민해 봅시다. 꼼꼼히 알아보고 생각해봅시다. 나아가 후보자들은 꼭 필요한 공약만을 진정성 있게 내세우고, 유권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후보자를 골라내도록 미니멀라이프의 기본원칙을 선거에도 적용한다면 우리의 선거와 정치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니멀라이프,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오늘 한 번 빠져보시겠어요? ☺



글 : 김재경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하긴... 누가 알아봐 달라고 싸웠나
내 나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싸웠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그로 인한 정국 마비와 국정동력 상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 증가와 불신감 팽배, 사회적 갈등 비용의 상승과 국민 사기 저하 등의 현상을 타개해 나가는 방안으로 협치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협치의 조건

협치란 무엇인가? 협치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협치는 가능한가? 협치는 타협인가, 협상인가, 협력인가? 담합이나 아합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 무엇이든 정치인들 간의 협치는 대중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정당들은 저마다 다른 정당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정당정책이나 역량이 다른 정당보다 더 낫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들이 과연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부터 경쟁해야 하는 것인가? 협치가 좋은 것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협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최근 들어 부쩍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해도 너무 한 걸로 국민들의 눈에 비쳤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안보, 외교, 복



지, 환경, 통일 어느 것 하나 기본 좋게 합의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사건건 서로 버티기와 발목 잡기로 타이밍이 생명인 정책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현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발 좀 그만 싸우고 꼭 필요한 정책을 제때 만들어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협치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협치가 팍 막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협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개헌의 필요성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제도, 또 하나는 문화다. 협치에 친화적인 제도가 있을 것이고,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가 있을 것이다. 제도와 문화적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협치를 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라고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협치에 친화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수결형(majoritarian democracy)과 합의형(consensus democracy)이 그것이다. 영국이 전자요, 독일이 후자에



가깝다. 다수결형은 정당 간의 대결적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형은 협상과 타협을 상시화시켜 협력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다수결형은 단순 다수제의 소선거구제, 단일정당 출신의 내각 구성, 주요 정당의 과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경쟁적인 다원주의적 이익집단시스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합의형은 비례대표제, 다당연립내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 협력 지향적인 조합주의적 이익집단체제와 친화성이 높다고 한다. 이 중 우리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다수결형에 가깝다.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긴 했으나 그 수가 현저히 적어 합의형 모델을 구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의 정당체제, 선거제도, 정부와 이익집단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협치를 부르짖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치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고치는 개헌 논의가 우선이다. 문화는 정체성의 영역이다. 나는 누구이며 나의 뿌리는 어딘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규범을 따르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관념과 지식체계를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과 동질성을 느끼는지 등이 곧 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는 내가 살아온 문화적 환경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은 사고와 존재와 행동의 양식에 영향을 미쳐 나의 타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타인은 나와 어디까지 비슷하고 어디부터 다른지, 다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다름으로 인한 갈등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정체성의 영역이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어떠한가? 속단일 수도 있으나 우리

는 정체성을 달리하는 타자(他者)에 대해 인색한 편이다. 쉽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고, 타자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서로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고, 세상 일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도 다르다. 그리고 대체로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상대방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 이는 타자화에 다름 아니다. 타자화란 다름을 다름으로써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됨이나 어리석음으로 규정하면서 배척과 교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일체의 사유 활동 및 행동을 일컫는다. 매우 익숙한 얘기 아닌가? 우리 정치는 입장을 달리하며 상대방을 끊임없이 타자화한다. 대화의 상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열등한 존재, 타락한 존재인데 무슨 대화를 하며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타자화의 기제가 작동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협치는 요원한 일이다. 물론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래서 개헌에 더 기대를 걸어본다. 개헌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혹시 정체성의 변화도 촉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다. 정체성이란 고정되고 고착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㉞

글 : 최진우 교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햄릿증후군과 선거



“오늘 뭐 먹지?”

점심 메뉴 결정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큰 고민거리이다. 현대인들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선택 장애 상황을 ‘햄릿증후군(Hamlet Syndrome)’이라고 한다. 햄릿증후군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며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데에서 착안한 신조어다. 이러한 햄릿증후군은 실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여러 가지 점심 메뉴 중에서 겨우 선택해 먹었다고 해도, 후식을 먹기 위해 간 카페에서 또 수많은 종류의 음료와 커피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햄릿증후군은 비단 식사 메뉴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조차 일명 ‘썸’(‘썸’은 남녀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 전 미묘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이라고 불리는 애매모호한 관계로 규정지며 친구 또는 연인으로 명확히 선택하기를 꺼린다. 연인으로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언제 끝내도 상관없고, 연인으로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썸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참 편리한 관계이다.

선택의 힘

이처럼 메뉴 선택과 같은 사소한 결정도 쉬이 내리지 못하는 우리가 유독 쉽게 선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각종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출신 지역, 정당 일체감, 후보의 이미지 또는 단순히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 등의 이유로 후보를 결정했다고 한다. 물론 답변 중에 정책이나 공약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책이나 공약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진 않는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연인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하지만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를 고를 때, 우리는 얼마나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는가?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를 운명과 우연 그리고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 중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선택’뿐이다. 하지만 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나아가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처럼 선택은 큰 힘을 가졌다. ‘선거’라는 한번의 선택이 짧게는 향후 4년, 길게는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무엇보다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메뉴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고, 썸 타다가 이루어진 사랑이 더욱 운명적이라 느껴지듯, 선거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선택한 후보가 국정을 더욱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신중한 선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화합’해야 한다. 화합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선택의 결과에 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는 것에서부터 희망찬 내일이 시작될 것이다. ☺



글 : 허민정 <제15기 대학생선거명예기자>



우리는 서로의 신중한 선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해야 한다.



바캉스를 위해 1년을 기다리는 파리지앵. 축제의 나라, 브라질리언은 1년간 카니발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답답한 일상에 묶여 사는 직장인들은 무엇을 기다릴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여름휴가’가 정답이다. 전 세계인들이 찾는 바다축제와 신비로운 동굴 탐사, 각박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슬로시티, 그리고 질푸른 동해를 벗 삼아 걷는 해파랑길까지. 여름휴가 때 가면 딱 좋은 곳을 소개한다.

바다와 함께 걷는다.

부산에서 고성까지 해파랑길

동해를 뚫고 올라오는 장엄한 일출, 넘실대는 파도, 실 새 없이 노래하는 갈매기... 이들과 함께 걷는 ‘해파랑길’은 국내 유일의 해안 종단 길이 자 최장거리 트레킹 코스다. 총 10개 구간, 50개 코스로 이뤄졌으며 전체 거리는 770km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시작한 1코스는 강원도 고성군 통일 전망대에서 마지막 50코스를 마무리한다. 지역마다 대표적인 명승지와 수많은 볼거리들이 해파랑길을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중 바다에서 해수욕을 겸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 동해 구간이다. 특히 33코스과 34코스에는 애국가의 배경화면으로 등장해 유명한 추암해변이 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백사장 규모가 300m가 채 되지 않는 어달해변이 기다린다. 바다 맞은편에 어달산과 오학산이 자리해 아늑한 기분마저 드는 곳이다. 이어서 서핑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좋은 대진 해변도 만난다. 동해의 절정은 망상해변에 있다. 이곳은 순백에 가까운 백사장과 얇은 수심의 해변으로 가족 피서지로도 안성맞춤이다.

문의: 망상 종합관광안내소 033-530-2800



여름휴가 “꼭 짚어, 여기 어때?”



어둠에 집중할 때 감사가 밀려온다. 탐사체험동굴 ‘백룡동굴’

구름도 쉬어가고 태풍도 막아서는 평창. 한반도의 등줄기에 위치한 평창은 해발 700m 고지대에 자리한다. 북부지역은 가리왕산, 오대산, 백적산, 선자령 등 1,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다. 남동부에 위치한 여름치마을 역시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찾아가는 길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울렁거린다. 여름치마을에는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이 있다. 이 동굴은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관광 동굴이 아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탐사복, 장화, 안전모, 헤드랜턴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탐사 체험동굴이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교과서에서 배웠던 종유석, 석순, 석주 등 기묘묘한 형상들을 보며 이동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탐사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면 랜턴을 끄고 어둠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는데, 순간 숙연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문의:** 여름치마을 033-334-7200~1

“
 답답한 일상에
 묶여사는
 직장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여름휴가.
 무더위가 기승인
 여름철에는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



섬에서 한 박자 쉬고, 슬로시티 신안군 증도

신안에는 1,004개의 섬들이 다도해 위로 보석처럼 점점이 박혀있다. 그중 증도는 인구 2천 명 내외의 작은 섬이다. 드넓은 천연 염전과 살아 숨 쉬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선정됐다. 증도에는 느낌보처럼 걷기 좋은 코스가 있다. 증도대교를 지나면 세 갈림길 앞

에 서게 되는데 오른쪽은 구불구불한 동쪽 해안선을 따라가는 1코스로 노을이 아름다운 ‘사색의 길’이다. 산 능선과 해안일주도로를 오르내리며 장쾌한 바다를 조망하는 코스이다. 왼쪽 길은 태평염전과 소금발전 망대를 볼 수 있는 5코스 ‘천일염길’이다. 태평염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소금발전망대에 오르면 끝없이 소금밭이 펼쳐진다. 1953년 전증도와 후증도 사이의 갯벌을 막아 형성한 염전으로 단일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소금창고들이 중앙대로를 따라 반듯반듯하게 이어진 모습이 미국 대평원을 가로지르는 이국적인 풍경을 닮았다. 해질녘 이곳을 찾으면 태평염전으로 떨어지는 금빛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소금박물관, 소금동굴힐링센터를 함께 돌아보면 더욱 의미 있는 느낌보 여행이 될 것이다.

문의: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7



전 세계인이 반했다. 보령 머드축제

대전해수욕장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서해안 최대 규모다. 3.5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은 대전해수욕장의 자랑. 백사장은 일반 모래보다 곱고 부드러운 패각 모래로 이뤄져 있다. 수온이 따뜻하고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부담 없다. 1988년 시작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보령머드축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 있는 축제다. 2011년 한 해 동안 225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 규모 축제다. 머드라 불리는 진흙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천연 미네랄과 미량원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사용됐다고 한다. 축제가 열리는 7월, 해변 가장 자리에는 대형 튜브 놀이시설이 설치된다. 시시때때로 호스에서 고운 진흙이 살포되면 잠시만에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뛰어들고 모두 진흙 옷을 입고 뒹굴고 장난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인근에 성주산자연휴양림, 보령석탄 박물관, 개화에 솔공원 등이 있어 같이 둘러보면 좋다. 지역의 별미는 조개구이와 바지락칼국수 등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다. **문의:** 대전해수욕장 041-933-7051

글: 임운석 여행 작가
 -여유만만, 한국기행, 숨은 한국 찾기 등 방송 출연
 -'내가 선택한 최고의 여행', '최고대 섬 여행' 등 여행서 집필.



미국 프로야구의 타협과 절충, 상생

7315만 9,044명. 2016년 미국 프로야구(MLB) 경기를 직접 관전한 팬의 숫자입니다. MLB는 지난 2007년 7,950만 3,17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2000년대 들어 꾸준히 평균 7,500만 명 정도의 관중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경기에도 매년 약 4,100만 정도의 유료 관중이 입장하니, 미국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야구장을 찾는 관중은 매년 1억 1,500만 명쯤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프로야구는 '전 국민의 오락(National Pastime)'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느닷없이 무슨 야구 얘기인가 하실 텐데, 이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기 스포츠로 성장하고 자리 잡기까지 불편했던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869년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라는 최초의 프로야구 팀이 창단했고, 1871년에는 '내셔널 어소시에이션(NA)'이라는 최초의 프로야구 리그가 생겼으니 미국 프로야구는 1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강하고 즐겁고 게다가 큰 수익까지 올리는 대표 프로스포츠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투쟁과 다툼, 그리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상생의 발전을 이룩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어느 때보다 희망이 넘치기도 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불협화음과 다툼과 아전인수 격의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거울삼아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하고 모시는 국정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LB에서는 다툼도 많았고 차별도 심했고 공생보다는 오로지 자기 팀, 자기

리그의 이익만 추구하던 시절도 꽤 됩니다. 부정행위도 발생했고 파업으로 위기도 겪었으며 금지약물의 추문도 있었습니다. 적자 구단이 많이 발생하면서 리그의 존폐 위기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프로야구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결국은 집단 이기주의를 떨치고 상생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1919년 시즌 당연히 우승할 것으로 여겨지던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신시내티 레즈에 패해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내줬을 때 도박사들의 매수설이 드러났습니다. MLB는 판사 출신의 '케네소 마운틴 랜디스'를 최초의 커미셔너로 임명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자체 조사로 매수 사실을 확인하고 당대 최고 선수 중 하나이던 슈레스 잭슨을 비롯해 8명을 영구제명 시켰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벌은 추상같아서 MLB 역사상 가장 많은 4,256안타를 친 피트 로즈도 불법 도박으로 1989년 야구계에서 영구제명시켰습니다.

1947년 재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브룩클린 다저스의 개막전에 출전해 박수갈채와 함께 엄청난 야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MLB 최초의 흑인 선수로 오늘날에도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1883년 모세스 워커라는 흑인 선수가 톨레도 팀에서 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짐 크로 법칙'이라는 차별규정을 만들어 흑인들을 MLB에서 내쫓은 어두운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후에야 로빈슨의 등장으로 MLB는 인권 평등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국가의 상징처럼 포장된 미국에서 프로야구는 노예 제도를 방불케 하는 '보류 조항(reserve clause)'이라는 규정을 거의 80년간 강제적용하며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이나 연봉 협상 등을 차단했습니다. 1890년대 선수들이 악덕 구단주들에 반란을 일으키자 만들어진 이 규정은 1975년에 폐지됐습니다. '커트 플러드'라는 흑인 선수가 대법원까지 가는 투쟁을 벌인 끝에 자신은 패했지만 결국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계약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끌어냈는데, 그는 이 재판으로 선수 생활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994년에는 선수 노조와 구단주와 사무국으로 편이 갈려 단체교섭에 실패, 최악의 파업으로 시즌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적으로는 30개 팀까지 팽창했지만 흑자 구단은 10팀 남짓했고 금지약물 파동까지 이어지며 리그는 존폐 위기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난 것은 결국 타협과 절충, 상생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미국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부의 억제와 나눔이었습니다. MLB는 구단주회의와 선수노조 그리고 사무국이 모두 머리를 모으고 합의해서 '사치세(luxury tax)'와 '수익분배제도(revenue sharing)'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치세란 간단히 설명하면 부자 팀이 상한선 이상의 팀 연봉을 쓸 경우 정해진 액수의 사치세를 내야하고, 그 돈의 일부는 가난한 팀에 지원됩니다. 수익분배는 각 팀이 벌어들이는 돈의 특정 액수를 모두한 데 모아 똑같이 나누는 제도입니다. 1,000을 버는 팀과 100을 버는 팀이 그중 30%씩을 모아서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당연히 작은 시장의 가난한 팀에게 혜택을 줍니다.

선수 노예 제도를 80년간 고수하고 흑인 선수를 60년간 추방했던 리그였지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타협과 절충 끝에 상생의 길로 들어서면서 MLB는 2016년 총수익이 12조 원에 30개 구단과 사무국 합쳐 1만 2,500명이 근무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기반은 바로 매년 7,500만 명의 야구장을 찾는 팬과 그보다 수십 배는 많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야구를 찾는 팬들입니다. 파업과 도박, 약물 등의 파문을 거치면서 파국의 위기도 맞았지만, 모든 것을 팬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운동장을 새로 짓고 입장료의 다변화와 다채로운 먹거리와 놀이 문화개발 등을 통해 MLB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구의 근간이 팬이라면 국가의 근간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타협과 절충, 협치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바른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㉞



글 : 민훈기 신문기자, 스포츠 해설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학사
2015~Spotv 야구해설위원
XTM 야구해설위원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거울삼아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하고 모시는 국정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수기획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그들과 우리의 선거문화를 함께 돌아보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어 더 뜻깊었다.



투 명하고 질서있는 한국의 선거제도

A-WEB은 창설 이후 매년 선거관리 역량강화를 실시해왔다. 한 회당 보통 10개 회원기관에서 2명씩, 총 20명가량 참여하여 10일 정도 사무처가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머물며 강의 및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본래 5월 말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조기대선 실시가 확정된 만큼 현정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궐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연수 참가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대선 일정에 맞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에는 총 11개 회원기관(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카라과, 튀니지, 인도네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탄자니아 잔지바르, 시에라리온)에서 21명이 참가했다.

본국의 선거관리제도에 대한 간략한 발표를 시작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의 핵심이 한국 대선 참관인 만큼 참관 전 참가자들에게 한국 선거제도, 조기대선이 치러진 배경 및 정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주의 교류의 장, A-WEB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참가자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거웠다. 사전투표 및 투표참관을 위해 대기 하던 중 선거벽보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사전투표와 투표절차에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들 국가와 다른 선거제도에 무척이나 흥미로워했다. 특히 멕시코 관계자는 “사전투표제도가 아주 인상적이다. 한국의 선거는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나갔고 또, 신뢰를 쌓은 것 같다”며 부러움을 전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투표율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참가자들은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바로 투표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투표 절차가 물 흐르듯 진행되고, 투표소 내부가 혼잡하지 않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점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어떤 국가에서는 투표소 앞에 음료를 틀어놓기도 하고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반면, 한국은 투표소에서 아무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했다. 또한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투표참여가 늘어날 것 같다고도 했다. 투표가 끝난 뒤 각 방송사별 개표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줬는데, 저마다 재치 있는 그래픽을 사용하는 점에도 크게 호응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투명하고 질서 있게 치러진 선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선거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

유난히 가족같은 분위기를 보여줬던 이번 연수 참가자들 덕분에 즐겁게 2주간의 연수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서로의 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고 약속했다. 그러던 와중에 튀니지 참가자 한 명이 선거 당일엔 본인의 계정에 써놓은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 ‘오늘은 한국의 선거일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선거일은 마치 쇼핑하는 날과도 같다. 군대나 보안요원도 없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도 없다. 혼란이나 혼선도 없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들이나 강아지나 고양이(심지어 이 친구들도 웃고 있다)와 함께 투표소에 가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떠난다. 튀니지에서 지금 어린 우리 아이들이 투표할 수 있을 때가 오면 한국과 같은 활기찬 분위기로 투표할 수 있다면 좋겠다.’ 연수기획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이번 참관의 경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그들과 우리의 선거문화를 함께 돌아볼

수 있었고, 더불어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었던 것 같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상호 교류, 보완을 통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보며 느꼈던 그들의 마음이 전해져 그들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향후 A-WEB이 운영하는 모든 연수가 참가자들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 동향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그 이름을 널리 퍼트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10



글 : 김보연 <A-WEB(세계선거관계자연수) 연수부>





아르헨티나 민주 정치의 상징, ‘라울 알폰신’



독재자의 위엄 과시로 전략한 아르헨티나 월드컵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는 그 차원을 달리 하는 ‘검은 월드컵’이었다. 당시 아르헨티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군부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그는 ‘더러운 전쟁’의 총지휘자였다. 그의 치세에 실종된 이들만 해도 최대 3만 명을 헤아릴 정도다. 비델라의 월드컵 유치 목적은 간단했다. ‘축구(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관심 소멸’ 살벌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임무는 단 한 가지였다. ‘어떻게든 우승’이었다.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진출하려면 페루팀을 네 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했다. 이때부터 월드컵 역사상 최대의 ‘부당거래’가 이뤄진다. 아르헨티나는 급거 페루에 곡물 수만 톤과 수천만 달러의 현금을 ‘원조’하게 되고 페루팀 골키퍼로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가 전격 기용되는 가 하면, 페루의 공격수들은 유난히 헛발질을 벌이고 최종 수비수가 공격진에 가세하는 희한한 포메이션을 보이게 된다. 결과는 6대 0이었다. 네덜란드와의 결승전에서도 심판진은 아르헨티나의 열두 번째 선수 노릇을 톡톡히 했고 결국 3대 1로 아르헨티나는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비델라가 환호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월드컵 제패로 아르헨티나의 국내외 사정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이번엔 축구 아닌 진짜 전쟁을 결행하게 된다. 바로 영국과의 포클랜드 분쟁이었다.

민주주의에 의한 정권교체

1982년 아르헨티나 군부는 자신들이 포클랜드를 공격하여 점령한다. 그러나 아무리 쇠퇴했다고 해도 영국은 강국이었다. 영국은 국력을 기울여 (앤드류 왕자까지 참전)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남대서양의 포클랜드를 되찾았다. 이 치욕적인 패배로 갈티에리 대통령은 비노네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고 물러섰으나 시헛말로 ‘삼짇’에 가까운 전쟁을 벌인 군부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수만 명의 국민들을 학살하는 ‘더러운 전쟁’을 벌였던 군부는 퇴진하고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굵게 새겨질 그날은 1983년 10월 30일이었다. 당선된 이는 1880년 급진당(Union Civica Radical) 후보 라울 알폰신.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투옥 경험도 있었던 그가 당선되자 불안해진 군부는 당연히 그들 나름의 보신책을 강구한다.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모든 정치 범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리고, 알폰신이 당선된 뒤 그에게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폰신은 대통령 취임 후 이를 무효화하고 대통령 소속 ‘전국실종자위원회’를 설치했다.

알폰신이 집권한 6년은 이 참혹한 군부독재와 민주 정권을 잇는 위태로운 다리라고도 같았다. 군부는 두 번이나 쿠데타를 기도했다. 이미 구제 불능으로 전락한 경제난 해결 또한 알폰신에게 지워진 험난한 과제였다. 총파업이 일어난 것만 해도 열 세 차례, 인플레이율은 3,920퍼센트에 달했으니 그 어깨가 내려앉을 정도의 무게였을 것이다. 결국 임기를 마치기 6개월 전,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카를로스 메넴에게 정권을 조기 이양하고 퇴진한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중 아르헨티나는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기염을 토한다.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었다. 78년 월드컵에서 군부 독재의 온갖 공작과 매수와 위협을 통해 어거지로 월드컵을 차지하여 스스로도 자랑스럽지 못했던 아르헨티나였으나 이번에는 마라도나, 부루차가, 발다노 등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호화 멤버를 가동하여 왕년의 적국 잉글랜드를 물리치고 잉글랜드를 편들었던 독일을 결승에서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것이다. 독일의 골 수상은 멕시코까지 불원천리 달려왔으나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대통령 알폰신은 지척의 멕시코를 찾지 못하고 중계방송을 봐야 했다. 결과는 ‘펠레 스코어’ 3대 2로 아르헨티나 승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열광했고 감격에 찬 알폰신은 우승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다. 전쟁과 독재, 살인적인 경제난과 인플레이 속에서 아르헨티나의 희망이 솟아오른 날이었다. 비록 대통령으로서 완벽한 임무 수행을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2009년 알폰신이 사망했을 때 아르헨티나는 전국이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다.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수만 명이 그 영구를 찾아 눈물을 흘리고 6년간 격동의 아르헨티나를 다스렸던 정치인을 추모했다. 군부 통치의 죄악을 씻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들의 준동을 막아 끝내 아르헨티나 민주 정치의 다리를 놓았고 경제적으로는 유능하지 않았으나 결코 개인적 부패에 물들지 않았던 대통령으로서의 알폰신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1983년 10월 30일 선거에서 당선된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행한 감동적인 연설, “법치체제와 국민자유의 수호자로서의 전통을 회복할 것입니다.”를 부르짖으며 1853년 제정된 아르헨티나 헌법 전문을 읽어 내리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㉞



알폰신이 집권한 6년은 참혹한 군부 독재와 민주 정권을 잇는 위태로운 다리라고도 같았다. 하지만 통치 기간 중 아르헨티나는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기염을 토한다.



글 : 하산자(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히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역사 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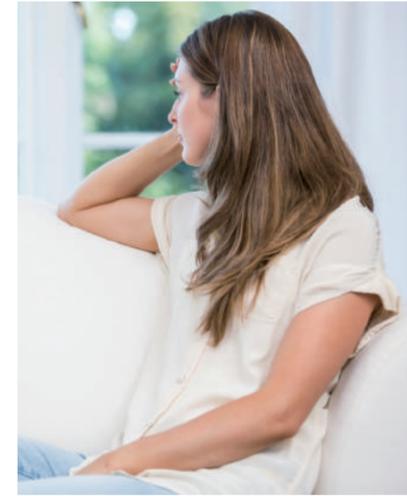
알 수 없는 남의 마음

얼마 전 친구 K가 “쏘주 한 잔” 하자고 했다. K가 술을 “쏘주”라고 발음한다는 건 뭔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나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삼성동이 당분간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래.” “삼성동은 K의 남자친구다. K가 남자친구를 본명 대신 그가 사는 동네인 ‘삼성동’으로 부른다는 건 당장 헤어지자 말할 만큼 화가 났다는 의미(라는 것을 나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쌌어?” “싸우긴! 프로젝트 하다가 핏값에 회사 그만두겠다고 큰 소리 친 모양이야.” “그러랑 네가 연락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 말이! 혼자 조용히 생각 좀 하고 싶어나?” 사이사이 쏟아낸 얘기를 정리해 보니 상황은 대략 이랬다.

K의 남자친구 ‘삼성동’은 프로젝트 때문에 연일 야근을 하던 중 팀장과 큰 소리로 언쟁을 했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내가 그만 두겠다’며 뛰쳐나왔지만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 큰 사고를 쳐버렸던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자친구인 K가 전화를 한 것이다.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곧 퇴근할 거면 내가 회사 근처로 갈 테니 한잔 하자고 했어. 그런데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 있지!” ‘삼성동’의 첫 마디는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나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야근한다 그랬잖아”였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나 회사 그만둘지도 몰라. 아 몰라, 자세한 건 묻지 마! 머리 아프니까. 그냥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마. 나도 좀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겠어”라고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그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게 나랑 계속 만날지 말지 생각한다는 소리일까?” “글쎄, 그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생각해보겠단 얘기 아닐까?” 나는 K를 위로했지만 사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것

남의 마음이란 원래 알 수가 없다. ‘삼성동’이 좀 더 부드럽게 얘기했다더라면 싶었지만, 호기롭게 뛰쳐나온 회사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로 들어가야 하는 ‘쭈글쭈글한’ 심정도 영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K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여자들이 매일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지 같은 여자들은 다 안다. 죄 지은 것도 없이 등줄기가 서늘해져서 골목 어귀에서 머뭇거리다가 K는 문득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은 ‘삼성



협치라는 단어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는 따뜻한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은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것이다.



동’도 비슷했는지 모른다. ‘어떡하지...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며 미래의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K를 떠올렸는지 모른다. 모르긴 해도 그는 언제나 K에게 좀 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도 없는 거친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소설가 김연수는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협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협치가 아니다!”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협치하게 협조 좀 해달라!”며 가슴을 친다. 협치의 사전적인 뜻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로, 그 공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는 따뜻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정치’와 ‘따뜻하다’는 형용사를 나란히 두는 건 참 오랜만이지만, 간지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번 적어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반목하는 사이다. 나의 이득이 종종 너에게는 손해이고, 그 차이를 좁히는 건 영영 불가능할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이 사랑이고, 삶이고, 정치고, 인간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라는 말은 “너를 이해해”보다는 “너를 이해하고 싶어”에 가깝다고 나는 믿는다.

후일담을 전하자면, K는 나와 “쏘주”를 마시고 돌아간 다음 날, 사과 전화를 걸어온 ‘삼성동’을 만나 고기를 구워 먹으며 “걱정 마! 팀장 그 자식이 자꾸 괴롭히면, 까지 거 회사 그만둬! 내가 너 먹여 살리면 되지!” 했다고 한다. 여자친구의 ‘부둥부둥’에 기운을 얻은 ‘삼성동’은 팀장에게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며 백배사죄를 했다고 한다. 뭐, 결국은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것이다. ㉞

글 : 신윤영 에디터 <싱글즈> 피쳐디렉터
책 <연애를 테이크아웃 하다> 저자



IPTV



케이블방송

한국선거방송 주요 프로그램

정확하고 생생한 선거정보

- 공직선거법 해설강좌
- 보트인사이드
- 선거 궁금해

우리의 미래 민주시민교육

- 다정다감 100인 토크
-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 대학생 토론대회

유익하고 건전한 인문·교양

-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 보트립
- 웹툰 드라마 '중립적인 사람들'

*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어요!

독자마당

댓글을 만나다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댓글을 만나다

- 포린시스**
투표소를 찾아가는 시간과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시간이 너무 뿌듯했어요~
- 말광량이 쟁**
재외선거 신고도 따로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도 널리 널리 퍼져서 다음 대선 때도 꼭 투표하면 좋겠어요~
- 20sskyo**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유익한 선거 정보를 많이 읽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기엔 모두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 가가가다**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세종대왕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분의 정치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의 마음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 핑크고스트**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어요!
- 에쁜여우**
저는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했어요. 가까운 읍면동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 더 편리하더라고요^^
- 세라믹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재외선거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 내앞에천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5월 4일 서울역에 다녀왔어요. 아름다운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태조마미**
5월 9일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했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 캐롤리나**
백성을 향한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고 두루두루 해결하고자 힘쓴 영조의 모습에 감명 받았어요. 영조의 업적처럼 대통령님도 민심을 잘 읽고 소통해가는 그런 모습이 기대됩니다~





모바일로 만나는
SNS 매거진 NO.21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